

## 지역사회중심재활에 대한 거점 보건소 물리치료사들의 인식도 조사

국립재활병원  
김 찬 문 · 전 유 진

### A Recognition Reserch of Physical Therapist in the Strong Point Public Health Center about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Kim, Chan-Mun\*, P.T. · Jun, Yu-Jin, O.T.  
National Rehabilitation Hospital\*

#### < Abstract >

This research is due to know the transformation after Physical Therapist(PT) was educated the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CBR) at the strong point by Public Health Center(PHC) of the CBR. It was the education of physical therapist of strong point by PHC of the CBR from April 17 to April 29 of 2000 in National Rehabilitation Cneter.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Questionnaire educated 39 peoples.

First, male and female are same rate, average age, 33 years old, In the position, regular position 86.3%, irregular position 13.2%. Second, the 76.3% was only working PHC one PT, the main patients were 73.7% of chronic degeneration and over 65 years old who are treated, they are treating 60.5% under 20 person in each day. Third, We asked three Questionnaire, these are, first, need CBR education, second, participating of the PT of the CBR projects, third, suggesting the CBR the another in the PHC. The most of 97.4% was answered the positive. 89.5% agreed that they can offer physical therapy to handicapped man without responsibility. And all of these answered 100% that they want to offer the physical therapy when they meet the handicapped. Are you can aviable to assess the part of handicapped they answered 71.1%, to therapeutic exercise 52.6%, to transfer and family education 47.4%, to gait training and family education 55.3%. In the welfare policy, introduce job and rehabilitation information side, having answer 44.7%. It was negative. In the filed of social welfare also is it possible for them to educate for the another medical staffs and volunteers is PHC . It was 52.6%. In Conclusion, needs and participant' s rate was high all the people but it was the less in professional physical therapy.

## I. 서 론

인구 노령화, 의료 기술의 발달, 각종 산업재해, 교통 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후천적 장애인과 노령 장애인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WHO, 1980; WHO/WPRO, 1984, 1991). 그러나 장애인 수에 비해 재활 서비스 기관과 인식 부족으로 적절하고 충분한 재활 서비스를 받지 못해 가정에서 재가 장애인으로 방치되어 장애를 심화시키는 경우가 매우 많다(Catherine, 1993; Martin, 1997; Tizun, 1997). 실제로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활 욕구의 70%는 장애의 조기 발견, 재활에 대한 인식 고취, 욕창 관리, 대소변 관리, 가욕구조 변경, 간단한 재활 치료등으로 1차 보건의료 수준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김병식, 1991; 황의경과 배광용, 1991).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손상과 장애가 생기는 과정에서 개입되는 전문가는 보건의료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보건의료인에게 일차적인 의존성을 갖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장애가 고정되어 객관적으로는 더 이상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 없지만 계속해서 의료적 서비스 욕구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재활 업무가 보건소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고(김찬호, 1998; 윤배중, 1997), 의료 인력이 배치되어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보건소에서 수행한다면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김찬문과 홍완성, 김찬문과 정재훈, 1998; 장은주, 1996). 1999년 5월 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는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역사회중심재활 전국 확대방안을 위한 체계 모색" 간담회를 개최, 서울 양천구를 비롯한 16개 지역사회중심재활 거점 보건소를 지정하였고, 이

에 필요한 예산을 2000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 계획에 반영하였다. 2000년 1월 전국 16개 거점보건소 사업설명회를 개최·세부추진계획 수립 방안을 시달하고, 3월 추진 계획안을 확정하여, 5월 장기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국립재활원, 2000).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중심재활에 대한 거점 보건소 물리치료사들의 인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의 대상은 2000년 4월17일 부터 4월 29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 거점 보건소 물리치료사 교육을 받은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39개로 하였다.

## II.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성은 남·여 각각 19명(50.0%), 평균 연령은 33세, 직급은 의료기술 8급 18명(47.4%), 의료기술 9급 11명(28.9%), 보건직 9급 3명(7.9%), 일용직이 5명(13.23%), 의료기술 7급이 각 1명(2.6%)으로 정규직이 86.8%, 비정규직이 13.2%였다. 결혼 상태는 기혼 33명(86.8%), 미혼 5명(13.2%)이고, 교육 정도는 전문대졸 24명(63.2%), 대졸 8명(21.1%), 대학재학 3명(7.9%), 대학원졸 2명(5.3%)였다. 임상에서 근무한 총 기간은 5년이상 26명(68.5%), 1년이상~5년미만 10명(26.4%), 1년미만 2명(5.3%)였고, 보건소에서 근무한 기간은 5년이상 26명(68.4%), 1년이상~5년미만 10명(26.4%), 1년미만 1명(2.6%)였다(표1).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 목	문 항	실 수	백 분 율
직 급	의료기술 8급	18	47.4
	의료기술 9급	11	28.9
	일용직	5	13.2
	보건직 9급	3	7.9
	의료기술 7급	1	2.6
임상에서 근무한 총기간	5년이상	26	68.5
	1년이상~5년미만	10	26.4
	1년미만	2	5.3
보건소에서 근무한 총기간	5년이상	26	68.4
	1년이상~5년미만	10	26.4
	1년미만	1	2.6

## 2. 보건소의 일반적인 특성

보건소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의 수는 1명이 29명(76.3%), 2명이 7명(18.4%), 3명 이상 이 2명(5.3%)이고 주된 치료 대상은 65세이상 만성퇴행성 질환자가

28명(73.7%), 근골격계 질환자가 4명(10.5%), 일반통증환자가 3명(7.9%), 신경계 질환자가 1명(2.6%)이었다. 일일 치료환자 수는 20명 미만이 23명(60.5%), 20명이상~30미만이 12명(31.6%), 30명이상 이 3명(7.9%)이었다(표2).

표 2. 보건소에서 일반적인 특성

문항	항목	실수	백분율
물리치료사 수	1명	29	76.3
	2명	7	18.4
	3명 이상	2	5.3
치료대상	65세이상 만성퇴행성환자	28	73.7
	근골격계질환자	4	10.5
	일반통증환자	3	7.9
	신경계질환자	1	2.6
일일치료환자수	20명 미만	23	60.5
	20명 이상 ~ 30명 미만	12	31.6
	30명 이상	3	7.9

## 3.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인식 변화

지역사회중심재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 '필요한 사업이다' 37명(97.4%), '그저 그렇다' 1명(2.6%),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에서 물리치료사 참여에 대해 '참여해야 한다' 37명(97.4%), '그저 그렇다' 1명(2.6%)이었다. 다른 보건소 물리치료사에게도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을 하도록 권장하겠느냐에 대해 '권장하겠다' 37명(97.4%), '그저 그렇다' 1명(2.6%)이었다. 장애인에게 부담없이 물리치료를 제공할수 있는가에 대해 '그렇다' 34명(89.5%), '보통이다' 3명(7.9%), '아니다' 1명(2.6%)이었다. 장애인을 보면 물리치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가에 대해 응답자 모두 '그렇다' 라고 대답하였다. 각 장애 유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느냐에

대해 '그렇다' 27명(71.1%), '보통이다' 9명(23.7%), '아니다' 2명(5.3%)이었다. 장애 유형에 따른 운동 치료와 이동 방법 및 보호자 교육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 '그렇다' 28명(52.6%), '보통이다' 6명(15.8%), '아니다' 4명(10.5%)이었다. 장애 유형에 따른 보행 방법 및 보호자 교육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 '그렇다' 29명(55.3%), '보통이다' 5명(13.2%), '아니다' 4명(10.5%)이었다. 복지정책 과 취업알선기관등 재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대해 '그렇다' 21명(44.76%), '보통이다' 6명(15.8%), '아니다' 11명(28.9%)로 사회복지 측면의 서비스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보건소내 다른 의료 요원과 자원봉사자를 교육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렇다' 29명(52.6%), '보통이다' 6명(15.8%), '아니다' 3명(7.9%)이었다(표3).

표 3.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을 받은 후 변화

문항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에 대한 필요성	37( 97.4)	1( 2.6)	-
지역사회중심재활에서 물리치료사의 참여	37( 97.4)	1( 2.6)	-
다른 보건소에 권장하겠느냐	37( 97.4)	1( 2.6)	-
다른 보건소에 권장하겠느냐	37( 97.4)	1( 2.6)	-
장애인에게 부담감없이 물리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가	34( 89.5)	3( 7.9)	1( 2.6)
장애인을 보면 물리치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가	38(100.0)	-	-
장애유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나	27( 71.1)	9(23.7)	2( 5.3)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치료를 실시할 수 있나	28( 52.6)	6(15.8)	4(10.5)
장애유형에 따른 이동방법 및 보호자 교육할 수 있나	28( 47.4)	6(15.8)	4(10.5)
장애유형에 따른 보행방법 및 보호자 교육할 수 있나	29( 55.3)	5(13.2)	4(10.5)
복지정책, 취업알선기관등 재활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21( 44.7)	6(15.8)	11(28.9)
보건소내 다른 의료요원과 자원봉사자를 교육시킬 수 있나	29( 52.6)	6(15.8)	3( 7.9)

### Ⅲ. 결 론

이 연구는 지역사회중심재활에 대한 거점 보건소 물리치료사들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한 대상은 2000년 4월17일부터 4월 29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 거점 보건소 물리치료사 교육을 받은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39개의 자료를 통계처리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성은 남녀 각각 19명이고, 평균 연령은 33세, 직급은 정규직 86.8%, 비정규직 13.2%였다.

둘째,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수는 1명이 29명(76.3%)이었고, 주된 치료 대상은 65세이상 만성 퇴행성질환자가 28명(73.7%), 하루에 치료하는 환자수는 20명미만이 23명(60.5%)이었다.

셋째,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지역사회중심재활에 대한 필요성과 물리치료사의 참여, 다른 보건소에도 권장하겠느냐에 대해서는 각각 그렇다 37명(97.4%)으로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장애인에게 부담감없이 물리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34명(89.5%)이 그렇다 라고 대답하였고, 장애인을 보면 물리치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자 모두 그렇다라고 대답하였다. 장애 유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는 27명(71.1%), 장애 유형에 따른 운동 치료 실시에 대해 28명(52.6%), 장애 유형에 따른 이동 방법 및 보호자 교육에 대해 28명(47.4%), 장애 유형에 따른 보행 방법 및 보호자 교육에 대해 29명(55.3%)이 그렇다 라고 대답하였다. 복지정책·취업알선기관등 재활 정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21명(44.7%)이 그렇다 라고 대답하여,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보건소내 다른 의료 요원과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29명(52.6%)이 그렇다 라고 대답하였다.

결론적으로 교육을 받은 후 지역사회중심재활에 대한 필요성과 참여도는 전체 응답자 모두 높았으나, 전문적인 물리치료 영역에서는 낮았다.

### <참고문헌>

- 국립재활원 : 2000년 상반기 지역사회중심재활 거점 보건소 운영자문회의, 2000.
- 김병식 : 재활의 새로운 돌파구 CBR이란 무엇인가, 장애인복지신문, 제9호, 1991.
- 김찬문, 홍완성, 배성일 : 서울시 보건소 물리치료사들의 지역사회중심재활에 대한 인식, 대한물리치료사학회지 제5권 1호 : 1998.
- 김찬문, 정재훈 : 경기도 보건소 물리치료사들의 지역사회

- 회중심재활에 대한 인식, 대한물리치료학회지 제10권 제1호 : 75 - 80, 1998.
- 김찬호 : 보건소의 업무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98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자료 I,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 23-42, 1998.
- 윤배중 : 보건소의 업무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97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자료 I,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 13-32, 1997.
- 장은주 : 전국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실태와 활성화방안, 대한물리치료사학회지 제3권 제4호 : 187-202, 1996.
- 황의경, 배광웅, 심신 장애인 재활복지론, 홍익재 : 361-370, 1991.
- Catherine L, Laura K :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caders-their motivation for volunteerism-International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rch 16 : 133-141, 1993.
- KNRC : International Seminar on Rehabilitation, Seoul, Korea : 22-23 April, 1994.
- Martin G : Community Oriented Rdhabilitation - Current and Future-' 97 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sability, Seoul Korea, September 1997.
- Tizun Zhao, Joseph Kwok : A Report on a Reserach Study to Develop Guidelines for CBR Evaluation, Asia & Pacific Journal on Disability Vol. 1 : 24-31, 1997.
- WHO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 Disability and Handicaps-A manual of classification relating to the connegences of diesase, Geneva, 1980.
- WHO / WPRO : Regional Workshop on training of Community Health and Welfare workers in Rehabilitation and Disability Prevention, Bacolod City, Philippines : 1-25 January, 1984
- WHO / WPRO : Intercountry Workshop on Planning and Management of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Programmes, Guangshou, Guangdong Province, China : 10-14 June, 1991.